

2.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의 사역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960년대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의 사역은 서울, 대전, 강릉, 부산을 기지로 하여 이뤄졌다. 서울에서는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가 1955년 11월 13일부터 존 채이스(John T. Chase)와 힐요한(John J. Hill)의 서울성서신학교(한국인성서훈련원)와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사역을 이어받아 1961년 3월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을 설립하였고, 1974년까지 19년간 사역하였으며, 최윤권 목사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1961년 11월 8일 귀국하여 대한기독교신학교(Korea Christian Seminary)와 대한기독교복음선교부(Korea Christian Gospel Mission)를 세워 2010년대까지 사역하였다. 테일러의 서울성서신학교와 기독교회선교부는 1962년 5월 25일에 입국한 배도은(Gorden Patten) 선교사가 이어받아 1990년대까지 발전시켜나갔다.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는 1981년 3월 2일 통합감사예배를 드림으로써 서울기독교대학교로 발전되었다.

대전에서는 존 J. 힐이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여 알렉스 빌즈(Alex Bills) 가족과 함께 2개월을 지낸 후, 선교사가 없던 대전에 정착하여 한국성서신학교와 한국 크리스찬 밋손을 세워 1972년 6월까지 13년간 사역하였다. 힐의 한국성서신학교와 한국 크리스찬 밋손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1970년 11월 15일 귀국한 김찬영 목사가 이어받아 1998년까지 발전시켜나갔다.

강릉에서는 1957년에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사역한 리처드 래쉬(Richard Rash)가 1958년 5월 10일부터 1964년 부산으로 옮겨갈 때까지 사역하였다. 래쉬가 부산으로 사역지를 옮긴 것은 장성만 목사와 함께 대학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부산에서는 크리스찬 라디오 밋손(Christian Radio Mission)

을 설립한 알렉스 빌즈가 1956년 12월 13일 입국하여 1961년까지, 조 세겔키(Joshep Seggelki, 1958-1961), 버트 엘리스(Bert Ellis, 1958-1983) 등과 함께 부산에서 라디오방송선교와 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힘썼다. 또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1964년 늦은 여름에 귀국한 장성만은 래쉬와 함께 1965년부터 대학교회와 진영 그리스도의 교회 등을 설립하였다. 그들이 세운 대학은 오늘날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교, 동서사이버대학교로 발전되었다.

이상 소개되었거나 추가로 소개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유약기)의 선교부(선교회)들은 교단의 공식적인 기구들이 아니다. 유약기에서는 개교회들이나 개인들이 각자가 후원하고 싶은 선교사들이나 기구들에 직접후원선교(Direct-Support Missions) 또는 생계비전담후원(Living Link)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소개될 선교부(선교회)들은 후원을 받아 행한 사역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필요한 감독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기구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부 선교부(선교회)들은 국내에서 펼치는 사역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재단법인의 명칭이거나 혹은 모금과 사용처에 대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운영하는 법인의 명칭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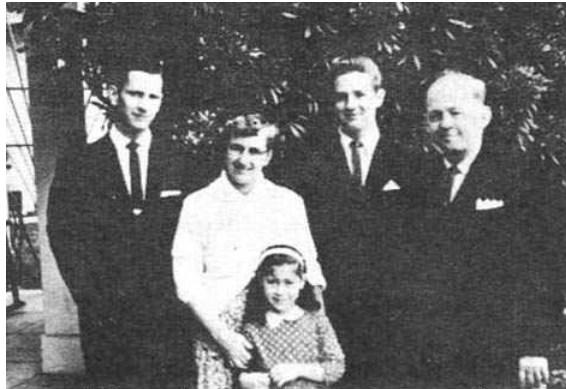
1)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

(1) 해롤드 테일러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는 1955년 11월 13일 입국 이후 내국인 사역자들의 극심한 반발과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군사혁명, 1972년 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격동기 20여년을 한국에서 보냈다.

테일러 선교사는 입국직후부터, 선교사들 간의 분열로 인해 추락된,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 복원과 분열치유를 위해 노력

하였고, 1956년 2월부터 실시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현황파악과 전국 순회 및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기금의 적절한 사용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1959년 10월경까지 11개의 새 예배당 건축, 1개의 장로교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 가족
조각부터 레일랜드(Leland), 에이다(Ada), 페니
루(Penny Lou), 글렌(Glenn), 해롤드(Harold)

회 예배당 매입, 34개 교회들을 신축 또는 수리토록 하였다.¹⁾ 또 테일러는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²⁾ 7,087평의 역촌동 땅위에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새 캠퍼스를 마련하여³⁾ 1963년에 개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채택한 후원계획과 방식, 곧 선임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후원금을 끊고 긴급 상황이나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은 내국인 사역자들의 이견과 반발을 사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테일러는 내국인들과 이견을 좁히고, 자신이 주도하는 비교파교회 플랜 곧 신약성서기독교를 전국에 소개하며, 목회자들의 설교준비와 목회사역을 돕기 위해서 월간 <한길>(One Way)을 1957년 3월에 창간하였다. <한길>은 처음에는 신문 형식으로 발간되다가 13호부터는 잡지형식으로 바꿨다. 매호마다 목상(QT), 교리, 선별된 기사들이 담겼고, 12-16쪽으로 구

1)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p. 3-4.

2) "Moving Days,"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 1.

3) "The New Location," *For Christ in Korea*, May 1960, p. 3.

성되었으며, 연말에는 합본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뿐 아니라, 많은 교파교회들, 학교들, 군목들에게도 발송되었다.⁴⁾

또 테일러는 전쟁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 보육원을 직접운영(부평) 또는 후원(인천 송의동, 대전 판암동)하였으며, 세 개의 중학교 설립을 돕고 순회하였으며 후원하였다.⁵⁾ 또 테일러는 리처드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가족과 고든 패튼(Gorden and Sharon Patten, 배도은) 가족을 선교사로 영입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다. 래쉬 가족은 1957년 6월 24일 부산에 도착하였고,⁶⁾ 고든 패튼은 1954년에 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물질적 궁핍을 깨닫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으며, 미국으로 돌아가 신학공부를 마친 후 1962년 5월 25일 부인과 두 딸과 함께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⁷⁾ 이뿐 아니라, 테일러는 장래가 촉망한 내국인 젊은이들을 지도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주선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최순국 목사, 최윤권 목사, 김진문 목사, 안재관 목사 등이다.

이밖에도 테일러는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일 년에 1-3차례 발행하였고, 1961년 3월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4) "Report of Progres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p. 1-2.

5) "No Mama, No Papa?" and "Middle School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p. 1-2, 4; Ada Taylor, "Changes at Bupyung" and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Middle Schools-A Real Need,"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p. 3-5; "These Little Ones" and "Your Middle School Needs You," *For Christ in Korea*, May 1959, pp. 3-4.

6) "First Word from the Lashes," *For Christ in Korea*, September 1957, pp. 1-2.

7) "A Place for the Pattens," *For Christ in Korea*, March 1962, p. 3;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한성신학교, 1991), pp. 151-53.

신약성서교회 조직에 힘썼으며, 여성들의 친교모임을 조직하여 월1회씩 모임을 갖도록 장려하였다.

테일러 자신은 이런 노력들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상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내국인 사역자들의 반발은 내국인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인정도 많은 힐 요한으로 하여금 재입국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자신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고, 또 자신이 신뢰했던 최윤권, 최순국, 안재관 등의 젊은 지도자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⁸⁾ 반면에 일방적이고 하나뿐이던 리더십에 다변화가 이뤄지게 되었고, 발전과 성장에 대한 동력도 훨씬 커지게 되었다.

해롤드 테일러는 1904년경에 태어났다. 그는 토마스 와 마리아 세이어(Thomas S. and Maria Etta Hoffa Sayer)의 딸인 에이더(Ada Mary Ellen Sayer)와 1924년경에 결혼하였다. 에이더는 1906년 1월 18일에 태어났다. 테일러는 에이더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러랜드(Leland)와 글렌(Glenn)을 두었고, 한국에서 딸 페니 류(Penny Lou)를 입양하였다. 테일러는 선교부의 모든 일을 후임자인 배도은에게 넘기고 만 70세 때인 1974년에 은퇴하였다. 그러나 부부 모두 은퇴 후의 여생이 길지 못하였다. 테일러는 1976년 5월 15일 교회 제직소풍 중에 심장마디로 쓰러진 후 오후 8시 13분에 만72세로 별세하였고, 에이더는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래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의 산호세에서 1980년 10월에 만74세로 영면하였다.⁹⁾

(2) 배도은

배도은(Gorden Patten) 선교사가 한국에 첫 발을 디딘 것은 6.25동란 직후인 1954년에 군인으로서 일 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였다. 동란직후인지라 한국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때였

8)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환원출판사, 2003년 수정증보판), pp. 56, 132.

9) 인터넷검색: The Family Records of Elsie Klinger Eaves.



배도은 선교사 가족(1962년)
 좌측부터 레이철 마리(Rachel Marie), 샤론(Sharon)과
 고든 패턴(Gorden Patten) 부부, 레베카 루스(Rebekah Ruth)

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때였고, 전쟁고아도 많았던 때였다. 이러한 사정을 체험으로 안 배도은은 제대 후 곧바로 산호세 신학교에 입학하여 선

교사가 되는 수업을 쌓기 시작했고, 1960년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배도은 선교사 내외는 두 딸과 함께 1962년 5월 25일 군인이 아닌 선교사의 자격으로 한국을 다시 찾게 되었다.¹⁰⁾

배도은 선교사는 입국하여 서울성서신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테일러 선교사를 도우며 한국말 공부에 주력하였고, 1963년에 개교한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한길> 발행과 부평보육원을 보조하였으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부산을 왕래하였다. 1964년에는 가정에서 영어성경반을 시작하였고, 새 집을 지어 이사하였다. 1966년에 첫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온 후부터 성경공부 교과서 출판에 헌신하였으며, 1968년에는 교도소선교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과 <반석 위에>라는 책을 번역 출판하였다.

1970년에 30여 종류의 전도지를 50만장 찍어 교도소 전도용으로 활용하거나 교회에 보냈고, 1971년에는 복음영화를 교도

10) "A Place for the Pattens," *For Christ in Korea*, March 1962, p. 3;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pp. 151-53.

소, 군부대, 교회, 고아원 등에서 상영함으로써 복음전도에 큰 효과를 보았다. 배도은은 테일러가 은퇴한 1974년에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의 이사장과 서울성서신학교 교장으로 선임되었고, 1975년에 이광 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하여 개교하였으며, 태광출판사(1975년 5월 26일 등록)를 세워 1977년까지 23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회복된 예언서들의 권위>(1975)와 <밝혀진 비밀(요한계시록연구)>(1983)는 직접 저술하였다. 1979년에는 신학교 이전을 위해서 안양에 부지를 매입하였다.

1980년에 부인이 소천하였고, 장녀가 미국에서 사망하는 슬픔 속에서도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의 통합에 합의하여 1981년 3월 2일 통합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이후 통합신학교(대한기독교신학교)의 이사장직을 수행하였다. 1982년에는 329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4권의 책과 10만장의 전도지를 발간하였으며, 1983년에 선교부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두 권의 새로운 책을 발간하였으며, 선교부 건물을 완공시켰다.¹¹⁾

배도은 선교사의 선교사역은 신조광 목사가 이어받았다. 신조광은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회 유지재단 이사장, 도서출판 태광출판사 대표, 월간 <한길> 발행인 겸 편집인, 보람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목사, 보람유치원 설립자,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 및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2) 대한 기독교 복음 선교부(Korea Christian Gospel Mission)

(1) 최윤권

최윤권 목사는 최상현 목사의 둘째 아들로서 군에서 연락장교

11)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pp. 151-53.



1956년 12월 31일 부산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1961년 11월에 귀국한 최윤권 목사

로 복무한 후에 제대하여 서울성서신학교에서 영어강사, 통역, <한길> 편집 등의 일을 하다가 1956년 미국 산호세 성서대학으로 유학하였고, 1960년에 졸업하였으며, 링컨기독교대학원을 1961년에 졸업하고, 1961년 11월 8일 귀국하였다.

최윤권은 귀국 후 도원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1963년에 통신신학을 개설하였고, 1964년에 <환원>지를 창간하였다. 최윤권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대한기독교대학기성회를 조직하였고, 1965년 3월 1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임시 교사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를 개교하였다. 최윤권 목사가 교장을 맡았고, 공동설립자 최순국 목사는 기성회(설립협의회) 회장과 제2대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구광서, 강병천, 성수경, 심영진, 이신, 김진문, 최윤환, 김규상 등이 강의를 맡아 가르쳤다. 동년 여름에는 효창동 소재 구 철도청 관사를 사들여 교사로 사용하였다.¹²⁾

대한기독교신학교는 1972년 2월 학교법인 환원학원과 4년제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았고, 1981년 3월 2일에는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의 통합감사예배를 드림으로써 서울성서신학교 캠퍼스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란 이름으로 새 출발하였다. 이후 1985년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로 지정되었고, 1997년 12월 대한기독교대학교로 승인을 받은 후, 1999년 12월 서울기독교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최윤권은 이곳에서 교장,

12)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p. 61.

학장, 총장,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윤권은 1966년에 지온보육원을 설립하였다. 결혼 후 빈민 동네였던 도원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고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다. 교인들 가운데 정신 장애를 가진 여성의 네 명의 자녀들을 돌본 것이 첫 출발이었다. 1981년에 소천한 민지온 여사의 이름을 딴 지온보육원은 대한기독교신학교 캠퍼스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강서구 개화동 325-11번지로 옮겼다.¹³⁾

최윤권은 방송선교와 출판에도 열정을 보였다. 1970년대에 기독교방송을 통해서 최순국, 김일엽과 함께 '이형과 더불어'를 진행하였고, 그 후 단독으로 기독교방송 혹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아워,' '성서로 돌아가자,' '기쁜 소식' 등을 방송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심야에 대북방송까지 하였다. 1988년부터 90년대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 속의 성경'이라는 텔레비전 종교 프로그램도 방송하였다.¹⁴⁾ 저서로는 <깨어진 십자가> 1, 2, 3권과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등이 있다.

3) 한국 복음전도 협의회(Korea Evangelistic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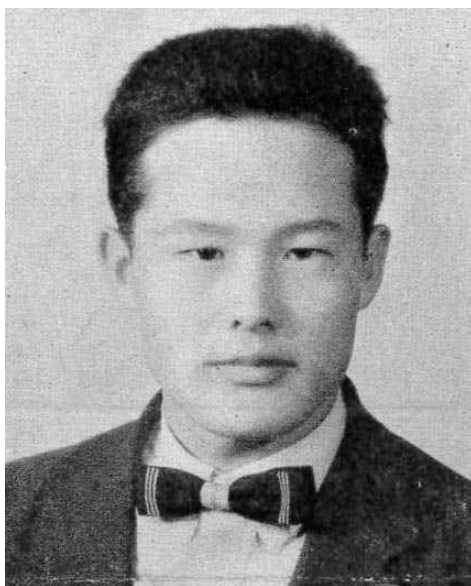
(1) 최순국

최순국 목사는 1933년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6.25전쟁 중에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재일본 한인 34명으로 구성된 의용군(학도병)에 자원입대하여 전투에 참가하였고, 미군부대에 편입되어 미 공군사병이었던 데일 브라운(Dale Brown)을 만나 친구가 되었는데, 브라운은 나중에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13)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p. 63.

14)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p. 65.

(Disciples of Christ) 목사가 되었다.¹⁵⁾ 최순국은 전후 한국에 남아 할 요한 선교사가 운영한 서울성서신학교를 다니면서 할의 통역을 겸하였다. 김은석 목사가 그의 결혼식 때 주례를 섰다.



미국으로 유학가기 직전의 최순국 목사(1959년)

최순국은 선교사들의 분열 당시 현장에서 지켜본 젊은이로서 1954년 6월 25일 신학교가 휴교하자 일본으로 건너가 요츠야선교부의 동경성서신학교

(1948년 4월 10일 개교¹⁶⁾)에 다니고 있었다. 그때 테일러 가족이 사역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최순국은 테일러를 찾아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상황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동년 12월 31일 입국하여 테일러와 래쉬의 통역을 맡았다.¹⁷⁾ 20대 초반의 최순국은 테일러 선교사와 내국인 사역자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테일러가 직면했던 초기의 난관들을 놀랍도록 지혜롭게 처리함으로써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¹⁸⁾

최순국은 1957년 4월 20일 입대하여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15) Timothy Lee, "Soongook Choi: Our taesonbae," Fall/Winter 2002-03 Bulletin(Vol. 72, No 2) of the Disciples Divinity Hous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View of Existing Conditions: A Brief History of the North American Pacific/Asian Disciples, 1891-2010," *Discipliana*, Spring 2012, p. 6.

16) "Bible College Opens in April," *Tokyo Christian*, March-April 1948, p. 1.

17) "Chueh Soog Gook,"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7, p. 1.

18) "To the Army,"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1.

받고 제대하였으며,¹⁹⁾ 1959년에 미국에 유학하여 1961년에 링컨기독교대학에서 문학사(A.B), 1962년에 신약신학을 전공하여 문학석사학위(MA)를 받고, 동년에 목사안수도 받았다. 이어 1965년에 밴더빌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B.D)를 받고 1966년 9월 1일경에 귀국하였다.²⁰⁾ 귀국하여 1969년까지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면서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의 기성회(설립협의회) 회장²¹⁾과 제2대 교장을 역임하였고, 교수, 목회자, 방송선교사로 왕성하게 사역하였다.

최순국은 1974년 미국 시카고로 이민하여 10월 20일에 시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²²⁾ 1997년 3월 은퇴 때까지 섬겼다. 최순국 목사는 1989년에 노트르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시카고 파크리지(Park Ridge)에 소재한 루터교종합병원(Lutheran General Hospital)의 정규직 원목으로도 사역하였다.

이밖에도 최순국은 한국인제자들교회협회(Korean Disciples Convocation)를 설립하였고, 북미태평양아시아인제자들(North American Pacific/Asian Disciples, NAPAD)을 조직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교단 총괄 이사회의 회원, 제자들교회신학원(Disciples Divinity House)의 이사(1989-97), 아시아계 미국인 제자들(American-Asian Disciples, AAD)의 회장,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국인 목회자회(Disciples of Christ Korean Fellowship)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교단에서 평가한 지난 1백년간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36명의 사역자에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선발되었고, 교단의 100대 목사에도 선정되었다.

19) *Ibid.*

20) Korea Evangelistic Association, 29 Mar 1966.

21)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20 November 1965;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leaflets), November 1965.

22) Korea Evangelistic Association, September 1974.

최순국 목사는 2002년 4월 14일 서울기독대학교로부터 명예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수개월 후인 9월 16일 소천 하였다.²³⁾

4) 한국 크리스찬 밋슨(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1) 힐 요한



힐 요한(John J. Hill) 선교사는 부인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의 가출로 인해서 1955년 7월 5일 한국을 떠났다가, 일본 오사카에서 건너와 1955년 6월부터 10월까지 힐의 선교 업무를 도왔던 제인 키넬트(Jane Kinnett) 선교사와 1956년 5월 25일 재혼하였고, 3년 후인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23)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pp. 250-258.

재입국하여 대전에 정착하였다.²⁴⁾ 대전으로 옮겨온 후 곧바로 신학교를 시작하였고, 노봉욱 장로의 헌신으로 1964년 4월 17일 교육부 사회교육과로부터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손(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의 설립을 허가받았다.²⁵⁾

1960년대는 힐의 나이 50대로써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절정기였다. 일제의 탄압도 없었고, 6.25와 같은 전쟁도 더 이상 없었다. 그의 한국체류기간에 4.19혁명과 5.16군사혁명이 있었으나 선교사역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오히려 힐은 한국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1972년 6월 은퇴할 때까지 13년 동안 성낙소, 이신, 최요한, 심영진, 정인소, 장성만, 이종만, 노봉욱 등의 내국인 지도자들, 특히 충청이남지역의 목회자들로부터 테일러보다는 훨씬 큰 지지와 존경을 받았다. 그 이유는 첫째, 힐이 1939년부터 배출한 목회자들이 교단의 주역들이었던 반면에 테일러가 배출한 목회자들은 갓 목회를 시작한 신출내기들이었다. 둘째, 힐은 커닝햄과 채이스가 취한 생계비전담후원(Living Link) 방식을 고수한 반면, 테일러는 선임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후원금을 끊고 긴급 상황이나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만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목회자들로부터 저항을 받았다. 셋째, 힐이 김은석 목사의 권유에 따라 대전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그의 영향권아래 있었던 충청이남지역의 목회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반면, 테일러는 정반대였다. 그러나 힐과 테일러가 은퇴한 1970년대 이후에는 서울성서신학교와 교육부로부터 각종학교인가를 받은 대한기독교신학교 출신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상황이 역전되었다. 따라서 김찬영 목사의 '한국 크리스찬 밋손'의 영향력은 최윤권 목사의 '대한 기독교 복음 선교부'와 배도은 선교사의 '기독교회선교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마침내는 '한국 크리스찬 밋손'이 대

24)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pp. 24-26.

25)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pp. 58-59.

전에서 서울로 넘어갔고, 1999년 10월 13일에는 그 이름마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으로 변경되었다.²⁶⁾ 현재 32개의 교회들이 이 재단에 가입되어 있다.

힐 요한 선교사는 한국 나이로 60세 때에 은퇴하였다. 그의 은퇴가 빨랐던 이유는 모금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힐이 1964년에 짓기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 최초의 교사 1-2층을 완공시킨 것은 김찬영 목사와 조가맨(Joe Garman) 선교사였다. 힐은 제인이 소천한 이듬해인 1983년에 미조리 주 조플린(Joplin)에서 아이린(Irene)을 만나 재혼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2009년 11월 4일 만 96세로 소천 때까지 에텐보육원과 한국의 열악한 5개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매월 후원하였고, 러시아 단기전도사역에도 참여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했던 산 증인이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그 자체였다.

(2) 버지니아 힐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은 힐 요한 선교사의 딸로서 오자크기독교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후 한국 크리스찬 밋슨의 선교사로서 1966년 8월 29일 입국하여 3년 만인 1969년 5월 30일 귀국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교육, 영어회화, 영어성경을 강의하였고, 여성3중창을 지도하여 조 가맨 선교사의 부흥전도여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

26)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p. 59.

행(1967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때 찬양을 불렀다. 이밖에도 충남대학교에서 영어회화를 매주 4시간씩 강의하였고, 선교사 자녀들, 의사들, 직업군인들, 간호실습생들, 대학생친목회(University Bible Fellowship Club)에서 영어성경을 가르쳤다. 그녀는 또 틈틈이 영아원, 논산 에덴 보육원, 부산 성광원, 임흥만 목사의 장호원 기독교중학교, 교회들을 방문하고, 극빈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영아들, 고아들, 복음중학교 학생들, 대전 수침교 아래 거지들의 의식주를 걱정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의 형제들에게 목적헌금(임흥만 목사의 기독교중학교, 논산 에덴 보육원, 부산 성광원, 한국성서신학교운영기금, 목회자후원기금 등), 특별지원(헌옷가지, 겨울옷가지, 기독교서적, 각종 사전류, 성서지리퀘도, 성경, 카메라필름 등) 등을 요청하였다.²⁷⁾

버지니아 힐은 1968년 4월 22일 논산 에덴보육원으로부터 인수받은 15명의 고아들과 당진에서 온 두 명의 남자 아이들로 대전 크리스천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개원하였다.²⁸⁾ 버지니아는 안식년을 가진 힐 선교사 내외와 함께 1969년 5월 30일 귀국하여 하비 벤두어(Harvey Bendure)와 결혼하여 슬하에 세 명의 딸을 두었다. 힐 가족을 대신해서 조가맨(Joe R. & Linda Garman) 부부가 10개월 체류 예정으로 내한하여 9월 8일부터 업무를 수행하였다.²⁹⁾

(3) 김찬영

김찬영 목사는 1936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출생하였다. 김찬영은 부산에 내려가 장성만 목사가 세운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

27)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20 July-20 November 1966; 14 October 1967.

28)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January-June 1968.

29)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30 April 1969;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pp. 12, 100.

에 출석하며 세족회 회원이 되었다. 1959년 8월에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 부산을 통해 입국하였을 때, 통역이 되어 힐의 가족과 함께 대전으로 올라왔다. 대전에서 충남대학교 야



김찬영 박사(중국 훈춘)

간에 다니며 1962년까지 힐 선교사의 사역들을 돕다가 군에 입대하였다. 제대 직후 1965년 9월 5일 힐과 장성만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 존슨성서대학(현 존슨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곳에서 같은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패츄리사(Patricia A.)를 만나 1967년 8월 25일 결혼하였다. 존슨성서대학 졸업 후 신시내티 크리스천 대학교 성서대학원에 입학하여 1969년 5월 10일 졸업하였다. 이후 신시내티 대학교와 루이빌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1년간 수학한 후, 부인 패츄리사와 자녀들을 데리고 19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다.

김찬영은 1972년 6월에 힐 요한 선교사가 퇴임함에 따라, 1972년 1월 21일 한국성서신학교의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1998년까지 교단과 한성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았다. 1998년 이후로는 CRAM(Christ Reaching Asia Mission Worldwide)을 조직하여 베트남과 중국 및 북한선교에 진력하였다. 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훈춘에 특수교육학교, 희망외국어학교, 복음식품유한회사(장애인 제빵기술교육 및 간식용 제빵공장), 희망농목개발유한회사(장애아동 재활승마 목장, 가축 목장, 옥수수 콩 경작지)를 설립하였으며, 2014년에는 중국 양포에 장애인, 고아원 및 양로원을 개원하였다. 또한 북한 나진시에 진료소 3곳(신해, 유현, 비파)과 120명을 수용하는 나선고아원을 헌당하였고(2006년 5월 17일), 선봉시에 빵공장

을 건립하여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빵과 콩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신해 목장과 유치원 2곳 및 탁아소 2곳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부모 없는 북한 청소년수용기술학교와 비즈니스텔을 건설하였다.

김찬영은 한양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1864-1936>, <예배학>, 설교집 등을 저술하였고, <예수의 마지막 주간>을 번역 출간하였다. 대전에 체류하는 동안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학장협의회 회장, 대전 외국어 학교 이사장,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교역자 협의회 재단 이사장 및 대표회장,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션 이사장, 대전 기독교 연합회 회장, 충청남도 도정자문 위원, 대전직할시 시정자문 위원, 대전 YMCA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대전 생명의 전화 설립 이사장, 충남 경찰국 교목, 국제 와이즈멘 한국서부 지구 총재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부인 김 패츄리사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고, 신학교 영내에 있었던 보육원에서 2남 2녀, 월남에서 온 남자아이 1명을 입양하여 미국에 보내는 등 큰 도움을 주었으며, 논산 연무읍의 에덴 보육원과 대전 자양동에 있는 피얼스 영아원을 도왔다. 또 패츄리사는 고아들의 외국 입양과 병든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 무료수술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1982년 대전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1989년 5월 5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으며, 1991년 5월 5일에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³⁰⁾

5) 크리스찬 라디오 밋션(Christian Radio Mission, CRM)

(1) 알렉스 빌즈와 플로라 매이 구른지

30)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pp. 446-451.



좌측부터 Becca, Betty, Brian,
Kathleen, Verlen Alex Bills, Guy Don

1950년대 후반
기에 라디오방송국
설립과 방송선교를
위해서 다수의 선
교사들이 입국하여
부산에서 활동하였
다.³¹⁾ 알렉스 빌즈
(Verlen Alex
Bills)는 1951년에
일본 오사카
(Osaka)에 선교사
로 부임하여³²⁾ '크

리스찬 라디오 미션'(Christian Radio Mission, CRM)을 세웠고, 월간소식지 <파장>(Wave Lengths)을 발행하였다. <파장>은 1952년 11월 6일 CRM에 합류한 엑시 제인 폴츠(Exie Jane Fultz)가 책임지고 발행하였다.³³⁾ 그녀는 1953년 4월 고베로 옮겨가 CRM의 전파선교방송을 이어갔고, <파장>을 1959년 2월(47번)호까지 발행하였다.³⁴⁾ 이후 폴츠는 1959년 6월 8일 '니폰 크리스천 방송 협회'(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³⁵⁾

빌즈는 라디오방송국 설립과 방송선교를 위해서 일본에서 5년, 한국에서 5년 동안 사역하였다. 빌즈는 라디오방송국 설립

31)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pp. 500-525.

32)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인터넷홈페이지).

33) "Exie Arrives," *Wave Lengths from Christian Radio Mission*, December 1952.

34) A New Work to Begin in Kobe, Japan, 1953.

35) New, Releases: 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 September 1959.

을 추진하는 동안 상업방송국들의 시간을 사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라디오선교프로그램들을 방송하였다. 빌즈는 1954년 말에 한국정부로부터 부산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세우도록 좋다는 허가서를 받고,³⁶⁾ 1956년 9월 24일 법인(CRM Incorporated)을 미국에 설립하였으며,³⁷⁾ 전 가족이 동년 12월 13일에 부산으로 옮겨와 의욕적으로 활동하였다.³⁸⁾ 그러나 자금부족으로 방송국설립이 무산되자 1961년에 CRM의 모든 사역을 접고 귀국하였다.

플로라 메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양은 CRM의 업무비서, 음악보조, 성서강의를 위해서 1957년 10월에 입국하여 빌즈를 도왔으며, 1959년 2월 25일 귀국하였다. 빌즈를 도와 사역한 내국인들에는 김홍균(매니저), 장성만(설교담당, 대교교회 목사), 김히영(방송 프로 제작, 음악 편집, 설교 통역) 등이 있었다.³⁹⁾



플로라 메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6) 한국 방송 선교회(Korean Broadcasting Mission, KBM)

(1) 조 세걸키와 버트 엘리스

알렉스 빌즈 가족의 동역자로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에는 구른

36) "Radio Station Permit Granted," *Wave Lengths*, March 1955.

37) "C.R.M. Incorporated," *Wave Lengths*, October–November 1956.

38) "Bills Family Arrive in Korea," *Wave Lengths*, January 1957.

39) "Workers Arrive," *Wave Lengths*, November 1957; "Ground Breaking," *Wave Lengths*, February 1958; "Kim," *Wave Lengths*, March 1958;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p. 51.



조 세겔키 가족
좌측부터 에디(Eddie), 보니 조(Bonnie Jo), 조와 맥심, 토미(Tommy), 마크(Mark)

지 양말고도 조 세겔키(Joshep Seggelki) 가족과 버트 엘리스(Bert Ellis) 가족이 있었다. 세겔키는 CRM의 업무추진담당자(Traffic Manager)로 1958년 1월 31일 입국하여⁴⁰⁾ 1961년 7월 안식년을 가졌으나 선교부의 책임자였던 테일러 선교사의 반대로 한국정부로부터 입국비자를 받지 못함으로써 예약해 놓은 1962년 7월 29일 배를 타지 못하였다.⁴¹⁾ 엘리스는 CRM의 프로그램제작부 담당자로 1958년 5월 3일 부산을 통해 입국하여⁴²⁾ 1982년 6월경에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부산에서의 사역은 1983년까지 25년간 이어졌다.⁴³⁾

CRM의 사역에 먹구름이 낀 것은 이상주의자였던 빌즈와 현실주의자들이었던 세겔키와 엘리스 사이의 충돌 때문이었다. 빌즈의 말만 믿고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입국한 세겔키와 엘리스는 빌즈의 이상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일을 엉망으로 만든 믿을 수 없는 인물로 여겨졌다. 빌즈의 이상이 실현되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빌즈에게 실망한 구른지는 1959년 2월 25일 귀국하였고, 세겔키와 엘리스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1959년 초부터 합심하여 '한국방송선교'(Korean Broadcasting Mission, KBM)를 설립하고 동년 4

40) "New Workers Arrive," *Wave Lengths*, March 1958.

41) Flashes from the Lashes, 3 October 1962.

42) "Ellis Family Arrives," *Wave Lengths*, June 1958.

43) "Bert Ellis Report Letter," June 1983.

월 16일부터 3년간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방송하였으며, 부산문화방송국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KBM은 1959년부터 계간으로 <킬로사이클>(Kilocycles)이란 이름의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그들을 도와 KBM에서 사역한 내국인들에는 이신 목사와 고재천 목사가 있었다.⁴⁴⁾ 이신은 이때 행한 설교들을 모아 기독교문사를 통해 1980년에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을 펴냈다.



좌측부터 버트(Bert), 존(John), 마조리 엘리스(Marjory Ellis)

세걸키와 엘리스는 방송선교와는 별도로 각각 별도의 성경공부반을 운영하였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세걸키 가족은 1961년 7월 자신들의 안식년을 갖기에 앞서 1960년 6월부터

안식년으로 자리를 비운 테일러 가족을 대신하기 위해서 서울로 옮겨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일들을 관리하였다. 엘리스는 전파선교가 무산된 후에도 1982년 6월까지 한국에 4-5개의 성경클럽과 통신강좌를 운영하였고, 동광 그리스도의 교회와 동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산에 개척하였다.⁴⁵⁾

7) 장성만의 재미 재단이사회

(1) 리처드 래쉬

래쉬(Richard Lash) 가족은 1957년 한국에 도착해서 약 1

44) *Kilocycles*, July 1959.

45) Korean Broadcasting Mission, May-June 1966.



래쉬 선교사 가족(좌측부터 리처드, 동, 도로시, 딸바, 1957년경)

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958년 5월 10일 강릉으로 옮겨갔다. 래쉬가 강릉을 선교지로 택한 이유는 태일러가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학교 운영을 중단하였고, 강릉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⁴⁶⁾

래쉬는 1958년 8월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장소를 마련하고 복음전도를 시작하였다. 이때 김은석 목사가 잠시 강릉에 내려와 집회들을 통해서 래쉬를 도왔다. 1963년 11월 20일자 서신에 의하면, 래쉬는 강릉에서의 사역의 제한성, 두 딸의 교육문제, 부산에서 함께 일하자는 장성만 목사의 지속적인 권유로 인해서⁴⁷⁾ 1964년 부산으로 선교지를 옮겨 활동하였다. 래쉬는 부산에서 장성만 목사와 함께 대학설립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기간에 대전까지 한국성서신학교에 출강하였다.

래쉬는 1971년 5월 1일자 서신에서 15년간의 한국 사역을 끝내고 8월경에 한국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언하였다. 래쉬는 그 이유를 “학교 인가(승인)가 생각보다 빨리 났고, 따라서 입

46) Flashes from the Lashes, 24 April 1958.

47) Flashes from the Lashes, 20 November 1963.

학정원의 증가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으며,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제한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발전하는 학교에 남아 그 공을 함께 누릴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더 유능한 인물이 자기가 차지한 자리에 대신 설 수 있도록 자신이 빠져줘야 하기 때문이다”고 적었다.⁴⁸⁾

래쉬 가족이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한 1971년 8월 첫 주에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당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대학교정에서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수련회가 개최되어 한꺼번에 작별인사를 할 수 있었고, 둘째 주부터 강릉지역을 방문하여 성장하고 있는 다섯 개 교회들을 기쁨으로 둘러본 후 8월 31일 한국을 떠났다.⁴⁹⁾

(2) 장성만



희갑을 맞는 民石 張 聖 萬 博士

장성만 목사는 1932년 11월 2일(음력)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장성만은 원래 장로교 교인이었으나, 6.25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 온 백발의 동석기 전도자(목사)가 미국 문화원 강당을 빌려 행한 기독교 강연회에 자주 참석하여 새로운 기독교 교리를 들었고, 동석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게 되었다. 장성만은 서울에서 피난 온 신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에 매진하다

48) Flashes from the Lashes, 1 May 1971.

49) Flashes from the Lashes, 11 October 1971.

가 낙동강 전투 때 국군에 입대하여 전투에 참가하였고, 제대 후 다시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1953년 1월 3일 자신의 집 2층에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수년 후부터는 라디오방송선교를 위해서 부산에 온 선교사 가족들이 교회에 참석하였고, 일본에 주재하는 마크 맥시(Mark Maxey), 데이비드(David), 심즈(Sims), 오사카성서신학교 교장 클라크(Clark) 등이 자주 찾아와 격려하였다.

장성만은 이후 맥시 선교사의 주선으로 오사카성서신학교를 졸업하였고, 약혼녀 박동순(이화여대 영문과 졸업)과 함께 미국에 유학하여 신시내티성서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1964년 늦은 여름 귀국하여 래쉬와 함께 동래 온천장에 작은 2층 건물을 세 얻어 1965년 2월 1일 경남정보대학의 전신인 2년제 대학과정을 출범시켰다.

장성만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은 동서대학교 총장으로, 차남은 제18대, 20대 국회의원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 장성만은 1950년대에 부산기독교문인협회를 창설하였고, 1963년 7월 수필동인회를 발족시켜 동인지 <隨筆>과 1960년대에 계간지 <基督教文藝>를 발행하였으며, 개인적으로도 월간 <아가페>를 프린트 판으로 발행하다가 후에 월간 <로고스>에 기독교사상과 생활지라는 부제를 부쳐 발행하였다. 이런 이유들로 그는 10권 이상의 책을 펴냈다. 그는 정치에도 입문하여 제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정당 부산시 지부 위원장(2회), 민정당 집행위원, 민정당 노동특위위원장, 국회예산결산위 제4분과위원장, 민정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부의장(12대)을 역임하였다.⁵⁰⁾ 2015년 12월 6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소천하였다.

8) 1992년까지 한국에 체류한 선교사들

50) 장성만, '나의 삶 나의 보람,' <민석 장성만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민석 장성만 박사 회갑기념논문편집위원회); 장성만,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2009년 4월 5일-5월 22일.

J. Michael & Martha Shelley(1935), T. G. Hitch(1938-39), John T. & Wahneta Chase(1936-40), John J. & Esther Hill(1939-55), Paul & Joan Ingram,1953-55), Robert West(1953-?), Jane Kinnett(1955), Howard Davis(1953-54), Lila Hiler(1953-56), Marry Barnhill(1954-55), Harold & Ada Taylor(1955-74), Alex & Betty Bills(1956-61), Flora Mae Guernsey(1957-59), Joshep & Maxine Seggelki(1958-61), Bert & Marjorie Ellis(1958-83), Richard & Melba Lash(1957-71), John & Jane Hill(1959-1972), Gorden & Sharon Patten(1962-?), Virginia Bendure(1966-69), Mary Harding(1967-67), Joe & Linda Garman(1969-70), Paul Comeaux(1969-70), Fred & Ellie Hoffman(1970-73), Patricia Kim(1970-98), Claudia Lazzereschi(1974-78), Bob & Joyce Warrick(1977-78), Charles Baer(1978-79), Debbie Ham(1978-84), Delroy Brown(1979-82), David & Loretta Warner(1979-84), Clarence Rittenour(1980-84), Keri Augsburger(1981-83), Mike & Joan Noel(1982-84), Vicki Jones(1983-84), Timothy Chambers(1983-84), Jim & Suzy Montgomery(1987-89), Kori Frye(1987-89), Karen Terhune(1990-92).⁵¹⁾

51)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pp. 155-156.